부담 Zero, 신심 100배… "맘대로 공부"

대학생불교연합회 '내 맘대로 공부방' 운영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대불련 법당서 진행

각자 1시간씩 불교서적 읽고
배운 내용 대중에게 설명
질의응답하며 불교지식 쌓아
"각 대학동아리로 확대되길"


11월 7일 대불련 '내 맘대로 공부방'에 참여한 대학생법우들이 독서 후 배운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부처님께서는 고행 이후 수자따의 우유죽 공양을 드시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떠났던 다섯 수행자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하셨습니다."

"자신 곁을 떠난 다섯 수행자에게 왜 제일 먼저 전법을 하셨나요?"

"수행자였던 부처님이 값진 우유죽을 드신 이유는 뭐에요?"

11월 7일 저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태우, 이하 대불련) 법당 안. 7명의 대학생불자들이 둘러 앉아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대불련이 10월 중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하는 '내 맘대로 공부방'이다.

이 공부방은 각자 고른 불교서적을 1시간동안 자유롭게 읽고, 배운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참석한 법우들은 대부분 불교에 막 입문한 대학생들이었다. 요즘 말로 불교에 대해 '1도 모른다'는 이들은 천진한 미소와 함께 궁금한 것을 가감없이 물었다.

박태우 회장은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부처님이 고행 이후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회원들에게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자 수자따에 대해, 다섯 수행자에 대해, 초전법륜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한동안 답변이 이어지고 공부방에 처음 참가한 법우의 차례가 왔다.

〈불교입문〉을 고른 이승범(국민대 · 16학번) 법우는 사찰예절 중 하나인 '고두례'를 설명했다. 이 법우는 "그동안 사찰에서 고두례를 하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했다"면서 "앞으로 마지막 절을 올릴 때는 고두례를 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겠다"고 말했다.

정윤정(이화여대 · 15학번) 법우는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법한 〈정토삼부경〉을 택했다. 그는 정토사상의 근본이자 극락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책에서 막연한 극락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 정 법우는 "어머니께서 사경하시는 걸 보고 이 책을 읽게 됐다.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아미타불이 법장보살일 때 세운 48대원을 읽었을 땐 정말 가능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의 생애〉를 잠시 읽은 정세영(서울여자간호대 · 16학번) 법우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설명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등장인물 이름과 불교용어가 난해하게 느껴져서다. 그는 "책 초반부인 부처님의 탄생과정을 읽었다. 하지만 단어가 생소해서 아직 법우들과 대화를 나눌 만큼 이해하지는 못했다"면서 "대신 공부방 모임이 아니어도 따로 시간을 내 읽어보고 싶은 흥미가 생겼다"고 밝혔다.

대불련이 이 같은 불교 공부모임을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신행기반 단체임에도 교리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대학 불교학생회마다 교리공부가 제각각 이뤄지는 데다 심지어 교리공부를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대불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법우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다만 지방에서는 참여가 어려워 별도의 지역 공부모임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활한 공부를 위해 지도법사나 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우 회장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동아리다. 편안한 공부모임에 지도법사, 고문 등을 두면 모임이 아닌 강의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대학동아리에도 자율적인 공부모임이 생겨 단순한 친목뿐만 아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장병들 安心立命 의지처 거듭나길"

조계종 군종교구, 특수전사령부 호국사자사 낙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5일 경기도 이천 소재 특수전사령부 법당 호국사자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이천사암연합회장 인성 스님, 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3여단장 강신화 준장, 3군사령부 보명 공영호 법사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서울 송파구에 주둔하면서 1988년 민병돈 사령관 재직 당시 법당 호국사자사를 창건했다. 이후 2001년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부대가 이천으로 이전, 지난 7월 사령부 본대가 이동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호국사자사 재건립이 진행됐다.

호국사자사는 대웅전 108평, 교육관 · 어린이법당 · 도서관 등 121평, 요사채 · 대중방 · 공양간 등 141평, 범종각 13평 규모로 군예산 2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호국사자사는 특전사 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는 안심입명(安心立命) 의 지처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국군장병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법도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설 중장은 기념사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려 검은 베레 특전사들이 정신을 맑게 가다듬는 힐링 도량, 호국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전력화를 이루는 큰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국사자사 지도법사 재각 군승은 "군장병과 지역주민의 수행 · 포교도량으로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삼성 서울R&D, '사고 팔며' 지역에 이바지

우면사회복지관 함께 11월 1~2일 나눔바자회 성료



서초구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는 나눔바자회가 열렸다.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DMC연구소장 김창용)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찬)과 함께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서 '2016 우면상회'를 개최했다.〈사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창립1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은 지역 주민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임직원 기부 물품 판매 △애장품 경매 △아트 체험 △문화공연 등 실시했다.

권영찬 관장은 "대기업에서 나눔을 위해 지역 복지관과 함께 활동한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른 복지관도 지역사회 기업과 함께하는 복지모델을 계획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어르신 차량 지원

서구노인복지관에 차량 및 유류비 100만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발이 돼 전국을 누빌 차량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총재 송경자)는 11월 8일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에 봉사차량과 유류비 1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송경자 총재는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계신 어른신들에 더욱 세심한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복지관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어르신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곡 스님은 "지원한 차량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NGO 봉사단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017년 라오스서 난치병아동 지원 사업 NGO봉사단원 2명과 프로젝트매니저 1명을 모집한다.

NGO 봉사단은 △난치병아동 지원사업 관리지원 △난치병아동 가족 돌봄센터 운영지원 △정부기관 · NGO 단체 네트워크사업서 활동하며, 전공무관하지만 의료 · 간호전공자나 아동 · 청소년 사회복지분야 경험자는 우대한다. 프로젝트매니저는 △라오스 내 기초조사 △신규 사업 발굴 · 수행 · 평가 △난치병아동치료비지원사업 관리 총괄 등 맡으며 의료 및 간호전공자 · 아동청소년 사회복지분야와 국제개발협력 경험자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서 단원지원서 작성 후 jabinanum.int@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02)6334-2214

이승희 기자

"청소년 꿈 · 희망 위해 미래 50년 준비"

청소년교화연합회, 11월 8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청소년교화연합회는 11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창립 50주년 후원의 밤을 열었다.

1966년 운문 스님과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선일, 이하 청교련)는 11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창립 50주년 후원의 밤'을 열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미래 50년을 준비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청교련은 1부 본행사서 50주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활동 청소년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청교련 총재 현성 스님은 치사를 통해 "50년 전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당시 청소년포교와 건전 육성을 위해 창립된 청교련의 나아갈 길이 더욱 큰 화두로 다가온다"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기상을 떨치고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회장 선일 스님은 인사말서 "과학문명이 발달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청교련이 조직 재구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찾고, 철학관을 키울 올바른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청교련 50주년을 축하하면서 국가와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단체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2부에는 김흥국 대한가수협회장 사회아래 후원의 시간과 △법고연주 △국립전통예술고 공연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공연 △마가 스님 자비명상 등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4일까지
◆ 개 강 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